

재외동포청, 유튜브 채널 '동포ON' 개편 “동포가 직접 참여하는 정책소통 채널로 바꾼다”

- 국무회의 중계, 정책 라이브 신설...재외동포 참여형 소통 본격화
- 해외 한인방송 연결, 동포통신원 신설...글로벌 동포 네트워크 구축

【관련 국정과제】 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(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)

-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4월 7일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 '동포ON'을 개편해, 재외동포가 정책을 직접 묻고 정부가 실시간으로 답하는 참여형 정책 소통 채널로 운영한다고 밝혔다.
 - 이번 개편은 공관·홈페이지·보도자료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존 정책 전달 방식을 넘어, 재외동포가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양방향 소통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.
- 먼저, 재외동포가 모국의 정책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책 라이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.
 - 국무회의 생중계와 주요 정책 현장을 실시간 또는 녹화로 전달해 정책 결정 과정과 정부 활동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.
 - '재외동포청 LIVE'를 신설해 주요 정책과 사업을 담당 간부가 직접 설명하고, 사전 질문과 실시간 채팅을 통해 동포와 질의응답을 진행한다.
 - '재외선거', '재외국민 등록' 등 재외동포에 관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재외동포가 함께 참여하는 특집 프로그램도 월 1회 운영할 계획이다.

- 해외 한인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한인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도 본격 추진한다.
 - 세계 각국 한인방송의 뉴스와 리포트를 편성해 지역별 동포 소식을 공유하고, 동포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한다.
 - ‘주간 글로벌 동포 뉴스’를 통해 재외동포 사회의 주요 이슈를 정기적으로 전달한다.

-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차세대 동포를 위한 다국어 콘텐츠도 확대한다.
 - 아리랑TV의 영어 콘텐츠와 한인방송의 현지어 콘텐츠를 편성해 다양한 언어로 정책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.

- 재외동포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쌍방향 소통 기능도 강화된다.
 - '동포가 묻는다' 코너를 통해 정책 관련 질문을 사전 접수하고,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답변하는 구조를 정례화한다.
 - 커뮤니티 기능을 활용한 정책 투표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재외동포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.

- 이와 함께 재외동포가 직접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'재외동포 크리에이터 공모전'도 추진한다.
 -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현지 삶과 동포 사회의 모습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공모하고, 우수 콘텐츠는 ‘동포ON’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공유할 예정이다.
 - 선발한 크리에이터는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‘동포 통신원’의 역할을 부여해 현지 소식 전달, 라이브 연결, 민심 전달 등을 수행하게 할

예정이다.

- 재외동포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▲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, ▲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강화하며, ▲동포 의견 수렴 체계를 체계화하는 한편 ▲정부와 재외동포를 직접 연결하는 디지털 정책 소통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.

-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“‘동포ON’을 재외동포가 모국과 직접 연결되는 대표 소통 창구로 발전시키겠다”며 “동포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형 콘텐츠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대변인실	책임자	과 장 박병규 (032-585-3107)
		담당자	사무관 김민지 (032-585-3246) 주무관 김담 (032-585-3247)

